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제2877호 www.metroseoul.co.kr

백혈병 6세 소년 "꿈이 이뤄졌어요"

18일 오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영희서(6)군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났다.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과 갤러리아백화점이 마련한 상황극 행사로 영군은 이날 자신이 꿈꿔왔던 영웅인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해 백화점에 나타난 악당을 물리쳤다. 영군의 어머니는 "아이에 꿈이었고 "처음엔 아이가 건을 먹어서 걱정했는데 나중에는 잘해 줘서 너무 자랑스럽다. 항암치료도 잘 되가고 있어 기분이 좋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정기상여금 넣고! 복리비 빼고!

대법 통상임금 판결로 근로자 실질급여 인상효과 … 재계 당혹 속 "소급적용 안돼 그나마 다행"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재계에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그간 경영 위축과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반대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반면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통상임금 확대로 근로자 실질급여 수준 높여져

대법원은 이날 "상여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통상임금이란 지급받은 급여 중 정액·정률 지급된 임금만을 의미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기 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최대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였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재계에서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주장에 따르면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장기 근속 유도나 보상·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로 본 통상임금 기준

임금유형	유형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상여금	정기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통상임금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인센티브 등)	해당안됨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	해당안됨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안됨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일정액은 보장되는 경우	통상임금
[illegible]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해당안됨
	퇴직자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연합뉴스

이렇듯 통상임금 여부를 놓고 노사의 견해가 갈린 것은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돼 금액이 증가할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다른 기타 수당의 기준이 되는데,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즉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증가해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 재계 "판결 존중" 불구 속으론 격앙

재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이 지금까지 노사 합의와 관행으로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정해진 것을 인정해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은 유지하거나 재확인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단 근로자가 추후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도 지금까지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까지 합의했다며 이에 기초해 조화 근로를 제공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다소 격앙된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20%가량 증가하게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기업 행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민기자 [illegible]

증권사 씁쓸한 저가경쟁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증권사들의 펀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뜻 보기에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수수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온라인 펀드 판매 시스템인 '펀드슈퍼마켓'까지 내년 3월 출범하면 개인의 펀드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처럼 저렴한 수수료만큼 수익률도 저렴해지면서 수수료 인하의 부메랑이 개인 투자자에게 되돌아올 우려가 있다.

'제 살 깎아 먹기 식' 저가 경쟁은 결국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펀드매니저가 불만족스러운 운용 보수를 받거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최소 인원으로 꾸려진 증권사에서 다른 업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맡게 되면 결과적으로 펀드 성과가 좋지 않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모펀드를 다루는 우수 인력이 사모펀드(PB) 운용 등 보다 나은 처우를 좇아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인력 이탈 측면에서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단기 수익률을 내는 데 치중하거나 자산 규모가 큰 펀드 위주로 운용하느라 군소 상품이나 장기 투자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들은 공짜나 할인된 가격을 좋아하기 마련이지만 높은 수익률이나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면충돌 치닫는 '철도'

코레일, 노조집행부 징계절차 착수…노조 "민노총과 대규모 집회"

철도노조 파업이 열흘째로 접어든 18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철도화물의 차량 수송을 거부하기로 해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철도노조와 정부가 대립 양상을 보이며 검·경은 노조집행부 검거에 나섰고,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145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정부가 적법한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민노총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맞서기로 했다.

다행히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메트로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전날 밤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 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피했다.

코레일은 이날 불법 파업으로 고소된 노조 집행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법 당국이 수사와 별개로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고 파업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에 따라 엄정히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에게는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구상금도 청구할 방침이다.

"엄정 대처"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흘째를 맞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공안부는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 현장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부와 코레일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 평가 및 철도민영화 반대' 관련 집회를 열고 보신각까지 행진을 벌였다.

노조는 또 19일 오후 6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노총 등과 대규모 2차 상경집회를 열기로 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 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83.1%로 17일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채동욱 내연녀-가사도우미 '협박' 등 대질조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와 가사도우미 이모(61)씨를 최근 대질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주말 대질신문을 통해 두 사람 간 금전 거래 내역과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폭언이나 협박을 통해 채무를 감면해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거나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두 사람은 임씨의 협박, 폭행 의혹 등과 관련해 서로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혜기자

뉴스 & 가속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수사결과 오늘 발표

●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오전 10시30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본부는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군무원·부이사관)과 심리전 요원 20여 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사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서 스님들과 산타 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검찰 출석

● 이석채(68) 전 KT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회장에게 1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 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부청사에도 '뜨거운 안녕' 한울냉이유니온 참여하는 연세대 … 한길동류금속군본부 등 소속 학생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민원실 문에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청사관리 직원이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대 공공기숙사비 월 3만원 낮춘다

정부, 공공기금 지원 확대

정부가 자금 지원을 늘려 대학 공공기숙사 비용을 지금보다 월 3만원가량 낮추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금 지원 조건을 개선해 기숙사비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기숙사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숙사 건설 시 공공기금의 지원 기간을 국민주택기금은 20년에서 30년으로, 사학진흥기금은 수도권 22년·지방권 28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학기금 금리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숙사 비용을 월 24만원에서 20만6000원으로 1인당 월 3만4000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대상에 통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동일 시·군내 도서지역 출신 대학생을 포함하고,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군 제대 후 복학하면 입주 자격도 유지해주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jhj@

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 외자계약서도 적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업체뿐 아니라 국외 업체와 직접 맺은 구매계약에서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8~2010년 3년간 한수원이 체결한 외자계약 245건을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위조 시험성적서 8건(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 18건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시험성적서 600건에서도 위조 25건과 확인 불가 8건이 발견됐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 외자계약에서도 시험성적서 위조가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드러나는 것이다. /박다예기자 yd@

벌써 시작된 '정시모집 전쟁' 18일 오후 서울 서○구 ○○에서 열린 '2014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가 김○선 입학처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경인국철 지하화 5개 지자체 한몸

구로역~인천 도원역 23.9㎞ 국책사업 채택 추진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구로구, 인천시 부평구·남동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18일 경인국철 지하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지자체는 경인국철 주변 주민의 숙원 사업인 국철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된다.

우선 지하화 사업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경인국철 지하화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 국책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인국철 지하화 사업은 5조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간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 도원역까지 총 23.9㎞, 19개 역이다. 이 중 부천시 구간은 6.6㎞ 5개 역이며, 서울시 구로구는 5.6㎞ 5개 역, 인천시 부평구와 남동구·남구는 11.7㎞ 9개 역 구간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인터넷 카페서 성매수자 모아 '필리핀 원정'

남성 전용 인터넷 카페에서 성매수자를 모아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와 성매매에 나선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리핀 현지 여행사 가이드인 김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여행사 대표 정모(5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수자들을 모집한 뒤 1인당 약 1000~3000페소(약 2만5000~7만5000원)를 받고 필리핀 현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카페를 통해 남성 회원 약 3000명을 모집했으며 활동을 많이 하는 회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우수회원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해 원정 성매수 남성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이 카페를 통해 원정 성매매하러 다녀온 카페 회원 손모(37)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현정기자 jhj@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크리스마스 캐럴' 출간

1843년 12월 19일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이 런던에서 출간됐다.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두 도시 이야기', '위대한 유산' 등 숱한 히트작을 저술한 인기작가 디킨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 할 수 있다. 인정머리 없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옛 친구 동업자 마레의 유령을 만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본 뒤 잘못을 뉘우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초판 6000부가 하루 만에 동이 날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42)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18일 피해자 남편 박모(34)씨와 자녀들이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광진구 중곡동에서 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이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유족 측은 서씨가 2004년 강도강간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 법 적용이 잘못돼 3년 이상 형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누범 적용 자체를 간과한 것은 아니어서 법 적용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다혜기자

‘야구도시’ 부산 제2구단·돔구장 뜨나

내일 시청서 새누리 박민식 의원 사회로 끝장토론 열어 공론화 ‘주목’

‘야구의 도시’ 부산에 제2구단 창단과 돔구장 건설을 위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실은 2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프로야구 제2구단 창단과 돔구장 건설을 위한 끝장 토론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수면 아래서 종종 거론되던 부산의 프로야구 제2구단 창단과 돔구장 건설 문제를 표면 위로 올려 공론화하는 첫 자리다.

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서 기조 발제는 부산일보 스포츠 기자 출신인 김해뉴스 남태우 편집국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경환 롯데팬클럽연합회 회장, 감종백 동의대 교수, 자전구 부산검실련 사무처장, 허효석 부산MBC 해설위원 등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 부문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물밑에서 제기돼왔던 제2구단 창단과 돔구장 건설 문제를 표면으로 끌어올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북항 개발과 연계한 돔구장 건설과 제2구단 창단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항그랜드디자인 특별위원회 이해성 위원장은 최근 “부산 시민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진취성은 대단하지만 롯데의 자이언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미미하다”며 “‘부산갈매기’라는 이름으로 부산 제2프로야구단을 만들자”고 시민 구단 창설을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항에 돔 야구장을 만들면 관광자원은 물론 마이스(MICE) 산업의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영양 만점 주키니 호박 드세요” 18일 경남 산청군 산안면 소이마을의 한 농민이 시설하우스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주키니 호박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요즘 한창 수확철인 주키니 호박은 소화 흡수가 잘되는 당질과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해 영양 만점으로, 애호박이나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연합뉴스

경성대학교 박은경 교수 한국법학회 학술상 수상

경성대 법학과 박은경(사진) 교수가 최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법학회 2013학년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2009년 우수논문상 수상에 이어 올해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현재 경성대학교 법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학문 연구 및 학생 지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의대 기말고사 기간 도서관에서 간식 제공

동의대학교(총장 심상무)는 201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12월 17~23일)을 맞아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빵과 음료 등을 나눠주는 ‘차 한잔의 여유’ 행사를 진행했다.

첫날인 17일에는 심상무 총장과 박동주 교학부총장이 도서관을 찾아 학생들에게 직접 빵과 음료를 나눠주고 열람실을 방문해 공부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동의대 중앙도서관은 2006년부터 시험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험 기간마다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신라대 외국인 유학생 이웃돕기 바자회 열어

신라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어교육센터 교수들은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제관 3층 엘어카페 로비에서 불우이웃돕기 신라 외국인 유학생 바자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신라대에 재학 중인 46개국 출신 609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교육센터 소속 270여 명과 교수 31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의류, 가전제품, 기호식품 등 200여 점을 기탁해 판매한다.

물품 판매 수익금과 이웃돕기 성금은 사상지역 불우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동래읍성역사축제 ‘2014유망축제’ 선정

문체부, 소재 특이성·관광객 체험프로 등 호평

충렬의 숭결로 재탄생된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명실공히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동래구는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문화관광축제의 유망 축제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매년 10월 동래문화회관·동래읍성 복문광장 등지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임진왜란과 조선시대 읍성 문화를 테마로 하는 소재의 특이성과 관광객들을 위한 참여 체험 프로그램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행사장 내 자원봉사자 운영과 행사장 위곤 공인 게시 축제 운영의 전문성 및 주민 참여도 등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였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은 물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국내외 홍보와 축제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구는 이로써 내년 행사에 89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지난 1995년 동래충렬제로 출발, 2005년부터 동래읍성역사축제로 개편돼 올해로 19회째 행사를 치렀다.

동래구 관계자는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우리가 사는 곳의 역사성과 선조들의 삶을 알게 하는 역사 교육형 체험 축제”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균기자 jhkim@metroseoul.co.kr

‘부산 국제금융연수원’ 설립운영 협약 체결식

국제금융 전문인력 아카데미 역할을 할 ‘부산 국제금융연수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식이 18일 금융감독원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협약 주체인 7개 금융기관과 국제금융연수원 설립을 지원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부산시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협약서에는 기관별 설립, 운영비용 분담 기준, 운영 인력 구성 등 7개 기관의 합의 사항이 실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한 공약 이행의 하나로 신설될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은 연 7000명의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금융, 파생금융, 선박·해양플랜트 파이낸싱 특화 교육을 비롯해 조선·해운사 직원 대상 금융전문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국제금융 등에 특화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부산이 선박·파생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해운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파이낸싱 교육을 통해 조선업과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9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문을 열 예정이며 한국금융연수원,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여신금융협회의 등 4개 금융 관련 연수원의 공동 분원 형태로 운영된다.

부산은 2009년 1월 선박·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통신사 물류창고 도둑 중고폰 5억원어치 훔쳐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중고 스마트폰 5억원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안성시 모 통신사 물류창고에서 이모(40)씨의 중고 스마트폰 4,280대(시가 5억여 원)를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업체 직원인 강씨는 이씨 대신 물건을 인수하러 온 것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납품단가 부풀려 횡령한 부산교통공사 직원 구속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도시철도 안내표지판 등의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산교통공사 직원 강모(48)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하철 내 안내표지판과 노선도 등 100여 개 물품을 사들이면서 납품 단가를 30%가량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해당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1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 돈을 준 납품업체 대표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사상건축상’ 수상작, 도시의 미래 담다

동서·신라·경남정보대 등 3개대 학생 대상 공모
최우수 3작품 등 입상작들 구청 민원쉼터서 전시

제2회 사상건축상 최우수 작품으로 동서대학교 최위환 팀의 '트레이스 밸리(Trace Valley)'(사진)와 신라대학교 김영춘씨의 '틈', 경남정보대 양금영 팀이 제출한 '송(松)이 빛을 품다' 등 세 작품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상구는 최근 지역 내 3개 대학별로 제2회 사상건축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모 작품 31점을 심사한 결과 입상작 14점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지역 소재 3개 대학교(동서대·신라대·경남정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서대는 '사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신라대는 '모라1동 통합주민센터', 경남정보대는 '덕포백양공원 주민편의시설' 등 각각 지역의 이슈화된 작품 주제를 부여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지역 내 건축학도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 널리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최우수작인 '트레이스 밸리'는 최위환·유상태 등 동서대 건축설계학과 학생 5명의 공동 작품으로 낙후된 사상 공업지역을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등을 갖춘 사상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안이다. 사상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기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松), 빛을 품다'는 양금영·정진우 등 경남정보대 건축과 학생 3명의 작품으로 백양산의 소나무와 낙동강의 강물이 어우러진 덕포백양공원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신라대 건축학과 김영춘 학생의 '틈'도 사람과 자연, 그리고 건물의 틈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라1동 통합주민센터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호평을 받았다.

이들의 작품은 오는 26일까지 구청 1층 민원쉼터에서 전시한다.

'사상건축상'은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송숙희 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에 도시와 건축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며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건축학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ahk@metroseoul.co.kr

범어정수장 ‘부부송’ 헬기 타고 이사

부산시민공원으로 옮겨 100년 만에 일반 공개

부산 범어정수장의 최고급 조경수인 '부부송(松)'(사진)이 19일 산림청 초대형 헬기를 타고 부산시민공원으로 이사를 한다.

정수장 시설의 보안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통제돼 수령이 뛰어나고 고가의 조경수임에도 이 부부송을 일반 시민은 구경할 수가 없었다.

부산시는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에 시민 모두가 감상할 수 있도록 이야깃거리를 만들자는 뜻에서 시민공원의 대표 시설물인 랜드마크 폭포가 있는 거울 연못의 수중섬에 부부송을 옮겨 심기로 했다.

수중섬은 2개로 이뤄져 있으며 부부송이 서로 마주 보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심을 계획이다.

이곳 또한 공원 이용객이 즐겨 찾는 방문자센터 앞에 위치해 아름다운 자태를 시민에게 뽐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이 부부송은 수령이 100년 안팎으로 수형이 뛰어나고 수세가 왕성해 그루당 7500만원을 호가한다.

초대형 산림청 헬기를 타고 옮겨질 부부송은 지난 7월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돼 부산시민공원으로 옮겨진 보호수급의 녹나무와 함께 또 다른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이식목 외에도 기존 부지 내 수목을 모아 만든 플라타너스 군락인 기억의 숲, 가이즈카 향나무 군락지인 향기의 숲, 졸참나무 할아버지나무, 김비랑 난 백송나무 이가씨 등 다양한 나무 이야기를 준비 중이다.

부산시민공원은 보상비를 포함해 66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이다.

/변철뉴스

부산시, BIP 방근 이사에 감사패 전달 지난 17일 부산 센텀호텔에서 열린 '201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결과 보고회'에서 후원기업 BIP(주) 방근(왼쪽) 이사가 이영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밀양연극촌 ‘어린이·청소년 겨울연극캠프’ 손짓

지역 연극 메카로 자리 잡은 경남 밀양연극촌은 내년 1월 7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청소년 겨울 연극캠프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연극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표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우러지는 작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연극 교육 프로그램은 세 차례(1월 7~11일, 14~18일, 21~25일)로 나눠 열린다.

4박5일간 발성, 발음, 말하기, 춤추기, 역할 정하기, 연극 만들기 등 연극에 관한 이해를 넓히면서 다양한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밀양연극촌은 설명했다. 관련 문의는 경남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 밀양연극촌(055-355-2308, 1320)으로 전화하면 된다.

화전산단내 임대아파트 건축 추진

부산도시공, 동북단 공동주택용지 1500가구 규모

상업용지 과다 분양과 아파트 유치 실패로 상권이 미형성돼 반쪽짜리 산업단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산 화전산업단지에 아파트 건축이 재추진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화전산단 동북단에 있는 공동주택 용지(5만4179㎡)에 국민임대아파트 건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될 국민임대아파트는 지상 20층 10여 개 동, 1500가구 규모다.

도시공사는 조만간 임대아파트 건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무리되면 내년 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실제 착공은 201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화전산단에 아파트가 건립되지 않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시 유지보다 차제 국민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K사가 이 땅에 부산시의 승인을 받고 도시공사와 1300가구 아파트 건립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산단에 입주한 동력부품업체 T사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변철뉴스

부산 ‘제2기 그린환경 지킴이’ 50명 선정

부산시는 환경 보전과 저탄소 녹색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녹색환경 파수꾼 '제1기 그린환경 지킴이'의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 1월까지 환경보호 활동을 펼칠 '제2기 그린환경 지킴이' 50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환경 지킴이는 환경녹지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등으로 구성돼 생활 주변의 환경녹지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제2기 그린환경 지킴이는 지난달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구·군 추천을 받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나머지 30명은 1기 활동 인원 30명을 재위촉했다.

제2기 그린환경 지킴이 임기는 올해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년간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린환경 지킴이는 사명감과 열정을 갖춘 회원에 활동기"리며 "더욱 살기 좋은 그린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ket index <18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74.63 (+8.69)	485.15 (-0.50)	2.90 (+0.02)	1052.50 (+0.50)

'판매수수료율' 백화점 28.5%·홈쇼핑 34.4%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백화점 및 TV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분석 결과, 국내 7개 주요 백화점의 올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5%로 작년(28.6%)보다 단 0.1%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백화점별로는 롯데(29.5%), 현대(28.6%), 신세계(27.8%) 등 상위 3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7%였다. AK플라자(28.8%), 갤러리아(27.8%) 등 나머지 4개사는 평균 26.8%였다.

입점 업체가 대기업일 경우 29.4%로 중소기업(28.2%)보다 높았고, 해외 명품은 22.0%로 전체 평균 수수료율(28.6%)보다 6.6%포인트나 낮았다.

반면에 TV 홈쇼핑사의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4%로 2011년 34.1%보다 오히려 0.3%포인트 올랐다. 업체별로는 GS(37.9%), CJO(36.7%), 현대(36.6%), 롯데(35.2%), 홈앤쇼핑(31.5%) 순이었다. /장윤희기자 unnie@

뉴스&뉴스

'몽클레르 패딩' 여기선 반값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롯데마트 빅마켓에서 몽클레르 패딩을 백화점 판매가 대비 50~70% 저렴하게 판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이통 매출 성장률 1위

● 국내 이동통신사의 3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가 발표한 '이동통신사 3분기 실적 벤치마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통사의 3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4%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 이통사는 각각 3%, 1%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유럽 이통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통사의 매출액 성장률은 롱텀에볼루션(LTE) 보급을 급증이 견인했다. /지재호기자

전월세 거래 3개월째 감소

● 매매시장 회복의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11월 전월세 거래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11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0만6027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작년 11월과 비교해 6.5%, 전달에 비해서는 10.9% 감소한 수치다. /박선옥기자

국내 실적보다 '선진국 성적표'

내년초 국내 증시 향방 가를 대외 이슈들·미·유럽·중국 지표 체크들

올해 증시는 유독 많을 가능할 수 없는 안개 장세가 이어졌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출렁이기 시작한 국내 증시는 연말을 앞둔 지금도 테이퍼링에 대한 짙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국내 증시의 향방은 여전히 국내 경제지표보다 대외 이슈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경기 회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와 정도,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회복세, 중국의 경제성장률 등을 눈여겨봐야 할 전망이다.

시장의 눈은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온통 쏠렸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8일 "국내 증시는 올 하반기 내내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 관련 이슈로 오르락내리락했다"며 "연말까지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수출 실적과 직접 맞닿은 미국, 유럽의 제조업 지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병현 동양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 수출 업종이 시가총액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대상국의 경기 회복세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ISM)제조업지수와 다음주 발표되는 유럽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선진국 실물경기의 회복세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선행 지표이므로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흥국의 경우 각국의 물가지표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지표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병현 연구원은 "신흥국들은 물가지표 동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그 외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산업 생산과 제조업지수도 지속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연구원은 "다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최종 생산품 역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므로 선진국 회복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대일 연구원은 "일단 중국에서 남은 주요 경제지표는 내년 1월 중순 발표되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라고 전했다.

김선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1월 초 개최되는 중국 상무부의 업무공작회의도 내년 중국의 소비부양 정책이 이뤄질 업종이 발표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2014년에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 대기오염, 식품 안전 및 아동 소비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이찔한 란제리 패션쇼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산타리나 란제리 란제리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원 '최악의 해'…무려 420명 징계

경영부실·비리 등 혐의 외환위기 관련 이후 최대

은행권에서 올해만 임직원 420여 명이 금융 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다. 이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관련 징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제주은행(68명),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 등의 순이었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기관경고를 한 차례, 신한은행·제주은행·농협은행은 기관주의를 올해에만 두 차례나 받았다.

올해 은행들의 각종 부실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5억6670만원에 달했다.

한국씨티은행이 과징금 1억6300만원에 과태료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은행(과태료 1억원), 신한은행(8750만원), 우리은행(4320만원), 전북은행(4200만원)도 적지 않은 벌금을 냈다. 올해 은행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경영 부실, 부당 영업, 비리·횡령 등이다.

내년에도 금융 당국의 검사와 제재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해 4대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에 따른 제재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도 의혹이 불거지면 선제적으로 특별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선준기자 rejune@

24일 오후 3시 이전 펀드 환매 신청해야 올해내 대금 지급돼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환매 대금을 올해 안에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 시간인 오후 3시를 넘어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 적용)을 받는다.

금투협은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인쇄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광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유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3-2900
독자센터 02)721-9863
1990년 5월 9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808

상사 앞 스마일…12월 능력 120% 발휘

내년 더 두둑한 월급을 위한 '연봉 협상 십계명'- 회사 상황 봐가며 요구를

연봉 협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보다 많은 연봉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취업포털 미디어잡이 18일 제시한 연봉 협상 노하우 10계명을 참조해야 할 이유다.

▶객관적인 수치로 말하자-회사는 주관적인 근거보단 객관적 수치를 통한 근거 제시를 원한다. 영업사원일 경우 매출 기여 지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일 경우 회사의 브랜드 광고 수익 등을 통계화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은 근태 성실, 경력은 실적 리더십-신입의 경우 회사에 기여한 실적보다는 근태와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자격증 취득 등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경력사원의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우선이다. 팀장급의 경우 리더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연말 실적을 높여라-하반기 히트곡이나 영화가 연말 수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1년 내내 열심히 성과를 내되 특히 10~12월은 120%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을 준비하자-기대보다 연봉 제시액이 적다고 우기는 식의 협상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상여금이나 복지 등 자신 보상책을 제시하는 등의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욕을 부리지 말자-기업의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조건 연봉 인상을 부르짖을 순 없기 때문이다.

▶기획서 작성 능력을 높여라-머릿속에서만 아이디어가 공부하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아기나 어딘이나 울어야 젖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인상을 남겨둬라-밝게 웃으며 씩씩하게 인사하는 사원과 성의 없이 인사하는 사원의 이미지는 확실히 다르다. 명절이나 경조사 때 문자메시지로 작은 성의를 표현하거나 회식이나 세미나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라-현재의 만족도와 회사에 대한 열정 등을 말하면서 더욱 높은 수준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경영진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직급과 역할이 높아져 연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기 PR을 제대로 하자-사장 임원과의 면담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성과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대화와 토론 능력을 갖춘다면 동료보다 5~10%는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정중하게 대하라-자신과 맞지 않는 의견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최대한 정중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중기 생산직 평균 일급 6만9423원으로 상승

패턴설계사의 평균 일급이 중소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00개 제조업체(종사자 20~299인)를 대상으로 올 9월 현재 직종별 임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일급은 6만9423원으로 전년의 6만6122원보다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일급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은 패턴설계사(11만3756원), 전자출판출력원(10만4895원), 안전관리사(10만4663원), 제도사(10만4257원), 편도사(10만1417원) 등이다.

반면 대형기 조작원(5만1920원), 방직기 조작원(5만4308원), 철강포장원(5만7576원), 고무제품 생산원(5만7945원), 접물재단원(5만8776원) 등은 일급 하위 직종에 꼽혔다.

주요 10개 직종에서는 작업반장이 8만8642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국명기자

'서울 상징 기념품' 눈에 띄네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부스에서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디자인페스티벌은 '나눔 디자인'을 주제로 22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잠 못 이루는' KT 황창규

"경영구상 자후 밝힐 것"

황창규(사진) KT 회장 내정자가 "많은 분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경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황창규 회장 내정자는 18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정리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 내정자와 기자의 만남은 최근 KT 회장 후보로 내정된 뒤 기자들이 황 내정자의 학교, 자택 등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한 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황 내정자는 취재 열기와 KT 경영에 대한 구상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말이 악수를 나눈 황 내정자는 최근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삼성 출신 인사, 낙하산 인사, 통신업계 경험이 전무한 점 등 우려를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전무) 역시 "황 내정자가 정식 선임된 후 기자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아직 정식 취임 전인 만큼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은행권 경력단절 여성 채용 줄이어

신한·기업은행 '시간제' 모집

주요 은행들이 육아·출산 등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신한은행은 경력단절 여성 200명을 재용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와 인크루트(www.shinhan.incruit.com) 사이트에서 내년 1월 9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입·출금 등의 업무를 맡는 시간제 리테일서비스(RS)직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시간제 RS직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고려해 오후 4시간만 근무하며 정년이 보장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한 연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일제 직원과 같은 수준의 복리후생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016년까지 경력단절 여성 500명을 시간제 RS직으로 채용한다. 연도별 채용 계획은 내년 200명, 2015년 200명, 2016년 100명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국내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창구 텔러, 사무지원, 전화상담원 분야에 시간제 근로자 109명을 채용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복지 혜택 등 모든 근로 조건이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 근로자와 동일하다. 4대 보험은 물론 자녀 학자금 지원도 받게 된다. 연봉은 무기계약직 초봉의 절반 수준인 1600만원(월 130만원 이상)으로 호봉제가 적용되며 매년 임금 규모 이상씩 오른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직 채용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며 "아직 채용을 시작하지 않은 은행들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산기자 ★★★

원더풀론 이웃돕기도 "원더풀"

임직원 직접 담근 김장·연탄 최근 소외계층에 전달 '봉사'

국내 소비자금융 브랜드인 원더풀론은 최근 소외계층에게 임직원이 직접 담근 김장과 연탄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원더풀론은 지난 14일 오전 10시에 서울 사랑노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원더풀론과 함께하는 2013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서울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더 희망찬 세상 만들기 연탄배달 자원봉사'도 진행했다.

이번 원더풀론의 봉사활동은 시각장애인 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이날 연탄배달 봉사에 참여한 황의론 원더풀론 이사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겨울 한파를 힘겹게 견뎌야 하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원더풀론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금융사를 목표로 창립 초기부터 올해까지 매년 꾸준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펴오고 있다. /김현정기자 h.kim@

‘분양가 장난’ 자충수?

관심 높던 독산 ‘롯데캐슬 골드파크’ 돌연 분양 미뤄

서울 시내에 들어서는 신도시급 복합단지로 화제를 모은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이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롯데건설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사업지에 위치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견본주택에 '2014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모델하우스까지 오픈한 뒤 분양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달 22일 견본주택 개관 후 3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가 하면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도 수십 명이 몰리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곳이다. 하지만 이번 분양 연기 결정으로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롯데건설이 결국 분양을 미룬 데는 고분양가가 지적되고 있다. 이 단지는 애초 3.3㎡당 1488만원에 분양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금천구는 물론 독산동의 3.3㎡ 매매가가 1000만원도 안 된다는 점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전용면적 84㎡ 기준 1350만원대까지 낮춰 다시 분양하겠다고 나섰지만 시행사인 제이피홀딩스와의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행사는 높게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분양률을 생각해서 낮추려다 보니 금액이 안 맞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분양가를 극적으로 낮춘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다 분양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분양가는 3.3㎡당 135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1448만원으로 발표해놓고 7% 인하한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견본주택 오픈 이전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면서 이미 평균 1350만원 저층은 1300만원까지도 분양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청약을 고려했던 한 모씨도 "분양 이전부터 3.3㎡당 1300만원대에 공급된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청약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원래 100원짜리 물건에 200원 가격표 붙여놓고 50% 할인해서 판다고 속인 것 같아 불쾌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택 크기별 타입별로 차이가 나는데, 가장 싼 가격을 말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인근 주민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20@metroseoul.co.kr

"빅데이터, 궁금해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빅데이터 제이 2013'에서 관람객들이 관련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말띠CEO 85명 “내년은 우리해”

국내 1000대 기업 조사

2014년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국내 1000대 기업 1264명의 최고경영자(CEO) 중 85명(6.7%)이 말띠 CEO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4년생이 55명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66년생 12명, 42년생 15명, 30년생 2명이었다. 78년생도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1000대 상장기업 내 말띠 CEO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말띠 CEO 중 최장 격은 30년생 동아타이어공업 김만수 회장과 국도화학 이삼열 회장이었다. 42년생 중에서는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회장,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 도화엔지니어링 오세광 회장 등이 대표적인 말띠 CEO에 해당된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에스텍 김충지 회장 등이 말띠 기업가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일동제약 이정치 회장도 42년생 말띠 경영자에 포함된다.

54년생 말띠 최고경영자 중에는 전문경영인이 다수 활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김외현 사장과 김정래 사장 모두 말띠 최고경영자다. 동년배인 두 CEO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약해 2014년에는 현대중공업을 이끌 쌍두마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박중흠 사장도 같은 말띠 CEO다. 박 사장 이외에 삼성 계열사 상장사 중에서는 삼성증권 김석 사장과 함께 최근에 삼성생명 수장으로 발탁된 김창수 사장도 말띠 CEO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이철환 사장, 삼성경제연구소 정기영 사장 등도 54년생 말띠에 해당된다. SK C&C 정철길 사장도 SK그룹 내 주목받는 말띠 기업가다.

최연소 말띠 기업가는 1978년생 아이에스동서 권민석 대표이사로 확인됐다. /김학규기자 kakt@

GE헬스케어, 성남에 R&D기지 설립

10년간 2000억 투자 계획

GE헬스케어 코리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및 성남시와 맘모그래피 글로벌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설립을 위한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GE는 향후 10년간 약 2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맘모그래피 솔루션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설립을 추진하며 한국 정부는 GE의 이번 사업과 관련해 협력기업 육성, 연구·개발 활동, 생산기지 설립 및 제반 사업 수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투자 협력 계획에 따르면 GE헬스케어 코리아는 2018년까지 80여 명의 고급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9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을 계획이다.

딘 센틸리 GE헬스케어 시스템즈 총괄사장은 "높은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기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 등 한국의 인프라가 전 세계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 유방암 근절을 위한 맘모그래피 연구·개발 생산기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크라이슬러 첫 소형 CUV 개발 중

크라이슬러가 피아트 친퀘첸토를 베이스로 한 지프스터(Jeepster)를 만들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토블로그에 따르면 크라이슬러는 미니 컨트리맨과 유사한 콘셉트인 지프스터를 개발 중이다. 지프스터는 피아트의 소형차 친퀘첸토(500)의 크로스오버 버전인 친퀘첸토XL을 베이스로 크라이슬러의 색을 입혔다.

친퀘첸토XL은 친퀘첸토의 차체 크기를 키운 소형 SUV 타입으로 2012년 제네바 모터쇼에 나온 500L의 7인승 버전이다. A필러와 C·D필러 부분을 블랙 하이그로시(고광택) 처리한 것은 미니 쿠퍼 계열의 라인업과 같고, 마감 처리도 매우 유사하다. 이번에 만들어질 지프스터는 SUV 요소가 더 강조될 것이 특징이고, 피아트에서는 친퀘첸토X(500X)로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과 디젤 모두 미국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2014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데뷔할 예정이다. 이 차가 데뷔하면 크라이슬러 최초의 소형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가 된다. /김재민기자 fema15@

갤노트3 플립커버 들뜸방지 ‘마그네틱 클립’ 출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슈피겐SGP는 갤럭시노트3 S뷰 커버 및 플립 커버의 들뜸 현상을 방지해주는 '마그네틱 클립'(사진)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자석을 활용해 전면 커버를 완벽하게 밀착시키고 고정해준다. S뷰 커버 및 플립 커버에 클립을 결합하고 기기 측면과 맞닿는 부분에 마그네틱을 부착하면 커버가 들뜨거나 뒤집었을 때 커버가 열리는 불편함 없이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 노트3의 측면 소재와 동일한 느낌의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일체감이 우수하며 고급스러운 광택을 자랑한다. 6300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이리여고 기숙사 기증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지난 17일 전북 익산시 이리여자고등학교를 찾아 교사, 학생,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 기숙사 '우정학사'를 준공·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이름 붙인 우정학사는 연면적 999.42㎡, 지상 3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4인용 기숙사 21실과 현대식 자율학습실,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박선옥기자 pso920@

"아날로그 의식으로 디지털 논할순 없죠"

성기현 KDMC 대표는 "진정한 디지털화란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고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추천 '내 인생의 책' 성기현 KDMC 대표의 '디지털이다'

MIT 미디어랩 공동 창설 네그로폰테 20년전 저서 '진정한 디지털화' 화두 기업 경영에도 적용할만

"디지털화란 것이 기술적인 변화만 있어선 안 됩니다.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대로 이뤄져야 진정한 디지털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티브로드 계열사인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KDMC) 성기현 대표는 미국 미디어 학자이자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미디어랩의 공동 창설자인 니컬러스 네그로폰테의 저서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를 소개하며 진정한 디지털화에 대해 중요한 화두를 던져준 책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이다'는 1990년대 디지털 혁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네그로폰테는 책에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발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에 있다"면서 "디지털 세상의 미래 비트를 통제하는 일은 바로 개인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결국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자연스러운 현상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성 대표는 "당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기술은 자연스레 변했는데 젊은 세대의 의식은 함께 변화하지 못했다"면서 "사고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하는데 생각의 모습은 아날로그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진정한 변화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닌 의식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부분들을 경영에 있어서도 반영하려 노력한다. 과거에는 케이블이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위주의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사고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시청자 니즈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선할 때 혁신가 이뤄지고 진정한 디지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성 대표는 이 책이 자신의 통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 워크숍이나 대학원에서 뉴미디어 분야 강연에 책의 내용은 지금도 참고해 설명한다고 전했다. 그는 "네그로폰테가 책을 쓴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만큼 대단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KT에서 위성사업 담당 부장과 현대전자에서 단말기 통신사업부 등 거쳐 상품 기획, 해외 마케팅 등의 경험. 싸이월을 통해 첫 방송 사업에 발을 내디딘 뒤 CJ케이블넷을 거쳐 티브로드 커뮤니티본부장(전무) 및 KDMC 대표를 역임하기까지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간접 경험이 크게 다가왔다고 한다.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을 그는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성 대표는 아직도 퍼즐을 맞춰나가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려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자주 접하려고 노력한다"며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엔 레볼릭스나 아마존 등의 성공과 관련된 책들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재필기자 fyh63@metroseoul.co.kr

주목/이 한 책

청춘, 착한 기업 시작했습니다

이회수·이재인 조성일/부키

꿈은 변해갑니다. 더 큰 꿈을 주기 위해 두 손 노력을 해야 할지 무엇을 더 공부하고, 누구를 만나 부탁이라도 해 볼지 고민하는 과정이 모두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만들어 놓은 과제만 받아서는 그런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157쪽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에서 수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기업이 가능할까. 이 책은 젊은 사회적 기업가 12명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이라는 수사가 가지는 공익적 요소와 기업이라는 말이 주는 경제적 요소를 조화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고시생에서 미술기획사 대표로 변신한 에이컴퍼니의 정지연, 공연기획사 노리앤플레이를 만들어 동네 주민이 극본을 쓰고 배우로 참여하는 연극으로 흥행 돌풍까지 일으킨 김동하 등이 이 같은 아름다운 반란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다.

경쟁하면서도 진솔한 청년 기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국현기자 lee@

정글의 법칙

빅터 W. 황·그렉 호로윗/북콘서트

열대우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며 특히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교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디어, 기능,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는 사회적 장벽은 혁신 기여에 불은 점과 같다 -86쪽

혁신의 열대우림으로 비유되는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7가지 요인으로 분석한 책이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기업인인 두 저자는 창조경제가 화두인 우리나라에 번역본을 내놓으며 열대우림 모델을 참고할 것을 제언한다.

저자들은 인류가 혁신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 열대우림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다면 실리콘밸리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리콘밸리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내용은 유용하지만 해외 사례와 전문 이론이 많고 문체가 딱딱한 점이 아쉽다. 책의 원제는 '열대우림-새로운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비결'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화제의 책

이나모리 가즈오 1155일간의 투쟁

오니시 야스유키/한빛비즈

집행임원이 10억 엔 정도의 예산 집행에 대해 설명을 하는 도중 갑자기 이나모리 가즈오가 말을 잘랐다.

"자네에겐 10억 엔은 커녕 단 한 푼도 맡길 수 없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번 예산안은 지금까지의 일본항공(JAL) 경영회의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금액도 안건도 아니었다. 예산 집행의 승인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영문을 몰라 하던 집행임원이 용기 내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건은 이미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청둥이 나올뻔 했다. "예산은 올리면 언제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네."

이나모리 가즈오는 책상을 두드리며 서슬 시퍼렇게 화를 냈다. "자네는 자기 돈이라면 이 사업에 10억 엔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

"아니, 그건…" 집행임원은 말끝을 흐렸다.

"그 10억 엔이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회삿 돈? 아니지! 회사가 곤경에 빠진 어렵 어려운 상황에서 사원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낸 이익이지 않은가! 자넨 그 돈을 사용할 자격이 없네. 돌아가게."

이 책은 현대 일본 굴지의 경영자인 이나모리 가즈오가 일본 대표 항공사 JAL을 회생한 과정을 밟아간 1155일 동안의 기록이다.

그는 2010년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한 JAL의 회장으로 취임 후 1년 만에 흑자 전환, 2년8개월 만에 주식시장 재상장 등 극적인 V자 회복을 이뤄냈다. 관계자와 전문가들조차 회생 불가능하다고 봤던 JAL이 이나모리 가즈오와 함께 새롭게 변해가는 이야기는 경영자가 무엇인가를 소개한다.

/박성훈기자 zen@

"푸틴 고마워" 윙크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쪽 눈을 윙크하며 웃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가를 대폭 인하하고 우크라이나 국채 매입 방식 등으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도 일기예보하자는 日

아베 총리 "국제 여론 조성이 중요" 발언에 자민당, NHK 활용 제안

'제국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독도 도발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는가 하면 여당인 자민당은 언론을 통해 독도 주변 일기예보를 공표하자는 황당한 발상도 내놓았다.

아베 총리는 18일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회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국제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위원회 위원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총리관저가 사령탑이 돼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명기하자는 제안을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특명위원회는 전날 독도를 비롯한 센카쿠 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등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 주변의 일기예보를 NHK 국제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이들 섬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며 일본의 입장이 교과서에 제대로 기술돼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특명위원회는 내년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를 정부에 이번주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한국어 포함 총 11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이 새로운 방식으로 영토 야욕을 드러내 한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갈등은 해를 넘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학철기자 kim.aa@metroseoul.co.kr

보스턴 테러 현장에서 싹튼 '사랑의 꽃'

극적 생존자-간호사 약혼

끔찍한 테러 현장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었다.

1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장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생존자가 자신을 돌봤던 간호사와 최근 약혼했다.

테러의 슬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화제의 주인공은 제임스 코스텔로(31). 테러 당시 결승선 주변에 서 있던 그는 폭발물의 유탄을 맞고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코스텔로는 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재활센터로 옮겼다가 간호사인 크리스타 다고스티노를 만났다. 대화가 잘 통하는 점에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제임스 코스텔로와 크리스타 다고스티노(왼쪽), 보스턴 마라톤 테러 현장에서 다 찢어진 바지에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코스텔로(오른쪽). /페이스북·로이터연합뉴스

코스텔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4월 15일은 내 생애 최악의 날이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게 됐다"며 "예쁘고 마음도 고운 크리스타를 만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리옹에서 이벤트에 약혼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현재 코스텔로와 크리스타는 열흘간의 일정으로 프랑스를 여행 중이다. 보스턴 테러 참사의 다른 생존자와 가족 등 100여 명과 함께 여정에 올랐다. /조선미기자

中 베이징시 "스모그 심한 날엔 인공 강우 실시"

중국 베이징시가 앞으로 스모그가 심한 날에는 인공 강우를 실시한다고 18일 신경보가 전했다.

베이징시의 리커정 부시장은 전날 '베이징시 기상현대화 회의'에서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인공 강우와 인공적인 안개 제거 등 두 가지 방식을 스모그 해결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상전문가는 "현재 국지적인 상황에서 인공 강우를 시행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넓은 범위에서 스모그 제거를 위한 인공 강우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조선미기자

몬트리올서도 비트코인 결제 시작

metro Canada

몬트리올의 한 신발가게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조르티'를 21세기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 신발매장 주인인 디에고 아르느도(사진)는 "전통과 현재가 만나는 방식이 재미있다"고 웃음지었다. 그는 "비트코인은 현재 하나의 트렌드면서 전세계적 화폐다. 이런 흐름을 가게에도 적용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2009년 처음 세상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국적, 은행과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가상 화폐다.

매장 주인 디에고 아르느도는 "이곳에서 신발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하길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QR코드를 계산대에서 스캔한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이기 때문에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페이팔과 같은 결제 서비스에서 3~4% 수수료를 요구한다.

몬트리올 상점의 비트코인 도입은 더딘 편이지만 그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몬트리올에 비트코인 대사 파비앙 로드리게즈는 당국과 은행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화폐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마티카스 페르살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3842m '허공'에 선 여인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알프스 샤모니의 에기유뒤미디산 해발 3842m 정상에 위치한 유리관 전망대 위에 관계자들이 서 있다. 방문객들이 허공 속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바닥과 옆면을 유리로 설계한 이 전망대는 오는 21일부터 일반 공개될 예정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하버드대 폭발물 소동 한인 학생 탓

"시험보기 싫어 거짓신고"

미국 하버드대의 폭발물 설치 소동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거짓신고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철부지 학생은 기말고사를 보지 않으려고 교내에 폭발물이 있다는 e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익명으로 전달된 e메일을 추적,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김모씨를 기숙사에서 붙잡았다.

FBI는 김씨가 기말고사를 보고 싶지 않아 폭발물 협박 메일을 썼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되면 김 씨는 5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25만 달러(약 2억6000만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조선미기자

구글 올해의 검색어 '만델라'

최근 타계한 넬슨 만델라(95)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이 올해 구글 트렌드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현지시간) 구글이 밝혔다.

2위는 영화배우 폴 워커(40)가 차지했다. '분노의 질주'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던 그는 지난달 말 자동차 교통사고로 숨졌다.

아이폰 5S(3위)와 삼성 갤럭시S4(8위), 플레이스테이션 4(10위) 등 전자제품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나라 이름으로는 '북한'이 유일하게 10위에 올랐다. 지난 3월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면서 세계적인 이목이 쏠린 덕분이다. /조선미기자

"블루투스 헤드셋도 스테레오로 들어요" 이어폰·헤드폰 전문기업 크레신이 1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한 매장에서 블루투스와 노이즈캔슬링 기술을 접목한 스테레오 블루투스 헤드셋 '피아톤 MS530'과 카본파이버 소재를 적용한 헤드폰 '피아톤 MS430'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

117번째 챔피언 '야스오' 공개

리그 오브 레전드가 117번째 신규 챔피언 '야스오'를 선보였다.

라이엇게임즈는 자사가 개발 및 배급하는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최신 패치를 통해 신규 챔피언인 야스오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117번째 신규 챔피언 야스오는 떠돌이 사무라이 모습으로 '용서받지 못한 자'란 별명을 갖고 있다. 야스오는 이동 시마다 발생하는 바람의 결인 '기류'를 사용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며 특히 다대다 전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주 공격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야스오의 기본 스킬인 '낭인의 길'은 치명타 확률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기류가 가득 차면 2초간 상대의 공격을 막는 보호막이 생성된다. '강철 폭풍'은 전방으로 검기를 발사해 직선상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힌다.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의 공격으로 중첩을 쌓으면 그다음 공격 시 적을 잠시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

권정현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본부 총괄상무는 "연말 인사를 맞아 보다 즐거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용호기자 unique@

첩첩산중 MS '위기 메아리'

태블릿 '서피스' 매출 부진
주력 SW도 모바일 앞 역풍
발머 대신할 CEO 없는데
스타 개발자 마저 구글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MS의 주력 분야가 모바일 시대에 잘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 선임 연기, 스타 개발자 이직 등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MS는 자기 텃밭이라고 꼽히는 모바일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태블릿 PC '서피스'의 부진이다.

아이패드, 갤럭시 탭과 같은 경쟁사의 스마트패드를 겨냥해 내놓은 제품이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이패드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를 놀라게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최대 반값을 깎아주는 할인으로 재차 경쟁쇼를 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매출액보다는 광고·영업비가 더 드는 상황이다.

주력인 소프트웨어 판매에서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분기(7~9월) 순이익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5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액은 16% 늘어난 185억3000만 달러를 따크레 견제를 과시했지만 문제는 '내일'이다.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PC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MS가 모바일용으로 내놓은 각종 소프트웨어는 매출 부진에 허덕이다 결국 무료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MS 내부에서 뭉쳐야 할 숙제도 어렵다. 미래가 불투명한 탓일까. 자기 CEO 선정이 내년 초로 미뤄졌다. 이날 MS CEO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후보군에 자그마치 20여 명이 포함됐다.

스티브 발머 현 CEO가 사임 의사를 공개한 건 지난 8월로 'CEO 리임덕'이 반년 이상 늘어나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날 스타 개발자가 라이벌 기업인 구글로 이직했다.

MS가 자랑하는 스타 개발자인 블레이즈 아게라이 아카스는 "멋진 계획들이 진행되는 도중에 나가는 것은 무척 아픈 일이다. 멋진 팀을 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다"고 개인 블로그에 소감을 밝혔다.

그는 증강현실, 웨어러블 컴퓨팅, 빙 지도 개발 등 MS의 미래 성장 동력 상품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SNS도 TV처럼 - 페이스북, 동영상 광고 시작

세계 최대 SNS 업체 페이스북이 19일께 동영상 광고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SNS가 방송국과 경쟁하는 새로운 비디어 시대가 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이같이 전하고 페이스북 웹사이트와 앱 모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동영상 광고는 사용자의 뉴스피드에서 자동으로 보인다. 광고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WSJ는 지난 8월 페이스북이 15초 분량의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광고료 역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페이스북의 첫 동영상 광고 중 하나는 라이언스 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영화 '다이버전트'로 알려졌다. /박성훈기자

라이나생명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암·치매·사망

[illegible]금, [illegible]이나에서 실버[illegible] 위한 [illegible]양한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 ☑ 61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전용 암보험
- ☑ 사시는 내내 암치료비 걱정 더시라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 ☑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음 *1회한, 암 종류별 보장내용 및 보장개시일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50~81세라면 나이·건강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

- ☑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일시금 지급
- ☑ 질병, 재해, 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보장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 ☑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를 가입 당일부터 보장

*최초 계약 7년 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보장하지 않음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라이나 무배당 THE **큰보장**실버보험

- ☑ 치매 초기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경증치매부터 보장
- ☑ 재해로 인한 입원, 골절, 화상 수술 보장 (선택 특약)
- ☑ 노년에 흔히 하는 폐렴, 천식, 간질환, 신장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보장 (선택 특약)
- ☑ 처음 보험료 그대로 갱신 없이 80세까지 보장

*가입 후 2년 후에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치료보험금 지급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24시간 무료 상담문의

080-325-1100

연말 파티에 취한 주류업계

강남 등 클럽서 ☆뮤지션 초청 대규모 행사

주류업계가 한 해 중 가장 성수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파티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각종 송년회 및 모임 등이 잦은 연말을 맞아 충성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하이트진로는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부산 소재 클럽, 서울 강남 소재 클럽 '클럽 신드롬' 매그넘' 등 전국 주요 장소에서 총 15회에 걸쳐 'd 굿바이 2013' 파티를 벌인다.

비발디파크에서는 2월까지 매주 토요일 박한규, 노브레인, 오렌지카라멜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d 라이딩 콘서트'를 연다. 부산 소재 클럽 크리드에서는 오는 20·27·28일에 이바놀·프릭하우스·디자이너드러그 등 국내 최고 수준의 DJ들과 함께하는 'Tonight d-night(투나잇 d나잇)' 파티를 준비했다.

이 회사는 또 지난 4일 연말연시를 맞아 홈파티에 최적화된 5ℓ 용량의 'd 점보캔 윈터 에디션'을 출시하고 1월 12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d 점보 윈터 파티'를 개최 중이다.

에거마이스터도 오는 25일과 31일 두 차례로 나눠 '예거마이스터 2013 연말 파티'를 벌이기로 했다. 25일에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클럽 앤써에서 '예거마이스터 크리스마스 파티'가, 31일에는 서울 역삼동 클럽 디에이에서 새해 맞이 파티 콘셉트의 '2014 카운트다운 파티'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 파티에는 국내 클럽 파티 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디제이 다구루·인사이드코어, 주크립·반달락 등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는 오는 31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2014 밀러 카운트다운 파티'를 개최한다. 일렉트로닉 음악과 밀러 맥주를 즐기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파티는 최근 DJ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레이트 박(박명수)'을 비롯해 클럽 음악의 대부 'DJ KOO', 하우스룰즈의 '서로(SORO)' 등 국내 최정상급 DJ들이 나와 일렉트로닉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영일기자 jyi@

매일 달려도 가뿐한 그녀

송년회 참석전 우유 한잔·도중엔 물 많이 과식 막아 다이어트에 도움

평소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해온 다이어터에게 연말보다 두려운 존재는 없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파티와 송년 모임이 많아지면서 술자리에 참석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술과 안주를 즐기다 보면 그동안의 노력은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십상이다.

◆술자리 참석 전엔 가벼운 식사나 우유 섭취가 좋아

연말 술자리를 모두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똑똑한 술자리 대처법을 통해 체중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우선 술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우유 등을 섭취해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술을 마시면서 물을 수시로 마시면 혈중 알코올 도수를 희석시킬 뿐 아니라 과음·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미 과음을 했다면 가벼운 신체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술이 깬 뒤 잠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 후 바로 다음날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 수분이 더 빠져나가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균형 잡힌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로 에너지대사 도와야

알코올이 들어가면 지방 분해보다는 합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사가 바뀐다. 또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이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뒤따라온 안주의 열량은 몸에 그대로 남는다. 그러므로 칼로리가 높은 안주를 피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안주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총 섭취 열량을 줄이면서 비타민·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란 참 어렵다. 그렇다고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소홀히 하면 체내 영양 불균형 상태가 심해져 비만 체질이 되기 쉽다. 이럴 때는 하루 일일 영양 권장량에 맞춰진 멀티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유리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비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음식으로 섭취한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저용량의 멀티비타민 제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영양 보충을 위한 대표적인 멀티비타민 중 하나는 센트룸이다. 14가지 비타민과 13가지 미네랄 등 총 27개 영양소로 구성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제품은 일일 영양 섭취량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제조됐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의약사들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멀티비타민으로 꼽히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도루코 '공군부대 습격' 면도기 업체 도루코리빙은 지난달부터 벌이고 있는 '밀리터리 어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산공군작전사령부를 미녀 산타들과 직접 방문해 면도기와 다양한 뷰티 생활용품들로 구성된 '페이스 키트' 1000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내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계속될 예정이다. /도루코리빙 제공

강강술래, 스파·뮤지컬·도서 '3종 선물'

연말까지 고객감사 힐링축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을 맞아 스파와 뮤지컬, 도서를 무료로 증정하는 고객감사 힐링 대축제를 벌인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올리면 게르마늄 함유 온천수가 공급돼 아토피 아이들은 물론 신경통, 관절염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의 스파와 온천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증정한다.

또 지역별 최상의 드라이브 코스와 맛집·숙소 등을 소개하는 '자동차 주말여행 코스북'과 '질병 치유와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공간을 설계해야 함을 보여주는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등 힐빙 추천 도서도 준다.

'회화와 미술이라는 소재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끌어들여 드로잉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리지널 드로잉쇼 티켓도 함께 증정한다.

강강술래는 이와 별도로 이달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인기 메뉴로 구성된 송년세트(한우불고기 500g+술래양념 520g+한돈양념 500g+돼지양념 500g)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는 3만7800원, 소용량 선물세트 2만2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 선물세트 2만5900원 등 각각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소외계층 찾아간 '한우'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청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한우 나눔 봉사 한우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전국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이 공터주간보호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한우불고기를 배식해주고 있는 모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러쉬 제공

뷰티업계 '착한 기부' 뷰티풀!

러쉬·스킨푸드 참여 잇따라

뷰티 업계가 연말을 맞이 '착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품 수익금 전달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불쌍한 동물들을 돕는다.

영국 화장품 브랜드 러쉬는 지난 7월 출시한 보디로션 '채러티 팟' 판매금 전액(1077만원)을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부금은 카라의 유기견 구조 및 동물 학대 방지 활동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카라 대표인 영화감독 임순례는 "러쉬는 누구보다 화장품 동물실험, 멸종위기 상어 보호 등 다방면에서 환경과 동물 보호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면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스킨푸드는 22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페이지에서 등록된 댓글 수에 따라 '로열 허니 착한 수분크림'을 기부하는 '로열 허니 기부 꿀단지' 이벤트를 벌인다.

저소득층 화상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댓글이 1000개를 넘으면 로열허니 착한 수분 크림 100개를, 1만 개를 넘으면 1000개를 한국인 체조직기증지원본부를 통해 화상환자들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헤어 '월동준비' 하셨어요

먼지·각질 딥클렌징은 기본 / 에센스·자외선 차단제로 찰랑찰랑 모발 시수

찬바람이 불면 반짝반짝 윤이 나던 머리카락도 메마른 지푸라기처럼 푸석거린다. 건강한 두피와 찰랑이는 머릿결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월동 준비가 필요하다.

건조한 날씨에는 두피에 각질이 생기기 쉬운데, 소홀히 관리하면 비듬과 탈모로 이어진다. 평소 머리를 감기 전 촘촘한 빗질로 두피와 모발 속 각종 먼지와 각질을 1차로 클렌징하고, 샴푸 후에는 완전히 말린다.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하면 약해진 큐티클이 손상돼 머리카락이 힘없이 늘어날 수 있다.

두피도 피부처럼 일주일에 1~2회 딥 클렌징을 하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게 좋다. 츠바키 헤드스파 엑스트라 클렌징'(왼쪽 사진)은 두피와 모발에 쌓인 노폐물을 산뜻하게 씻어주는 딥 클렌징 샴푸로 천연 에센셜 오일이 함유돼 두피를 건강하게 가꿔준다.

머리카락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다. 특히 겨울철 자주 찾는 스키장은 빛의 반사가 심해 장시간 노출 시 두피를 자극해 모근이 약해진다. 정전기 역시 탈모의 원인이 되므로 수시로 헤어 에센스나 미스트를 뿌려준다. 스프레이형 헤어 에센스 '마쉐리 아쿠아 에너지 미스트'(오른쪽)는 손상된 모발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열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한다.

시세이도 페스티지 마케팅팀 김태희 대리는 "겨울철은 머리카락과 두피에 각종 노폐물이 쌓이기 쉽다"며 "주기적인 두피 클렌징과 헤어 에센스를 사용해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얼굴부터 발끝까지 꿀 바른 여자야~

건조한 겨울 꿀성분 보디 스크럽·메이크업 제품 눈길

올겨울 꿀이 무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꿀은 보습은 물론 영양 공급 효과가 뛰어나 겨울철 건조한 피부 해결사로 불린다. 최근 뷰티업계가 꿀 성분을 활용해 보디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다양하게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각질이 일어나 가려운 피부에는 꿀 성분의 보디 스크럽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 '멜비타 아피코스미 보디 스크럽'은 3 허니 복합체(아카시아 꿀·박리한 꿀·오렌지블라섬 꿀)와 비왁스 성분이 함유돼 있어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한다. 또 어르간 넛트 파우더가 피부를 윤기 있게 가꿔준다.

앵두 같은 촉촉한 입술을 만드는 데도 꿀은 최고의 재료이다. 더샘의 '멜리스 아벨 허니 슈가 스크럽'은 천연 아카시아 꿀 성분이 묵은 각질을 벗겨내고 생기를 부여한다.

꿀광, '꿀 피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여성들이 꿀을 바른 듯 매끈한 피부에 열광하면서 메이크업 제품까지 꿀을 품었다.

조성아22 '허니 슬림 롤러 루미너스'는 꿀 성분이 24시간 보습과 함께 탱탱한 풀러 효과를 선사한다. 메이크업 위에 살짝 두드려주면 '꿀'나는 피부가 완성된다.

/박지원기자

저소득층 환자에 '사랑의 밑반찬'

이대목동병원 40가구에 전달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서울 강서 양천지역의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들을 위해 AIA생명 한국지점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사랑 나눔 릴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대목동병원 및 AIA생명 임직원, 지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저소득층 암환자와 난치성질환자들에게 제공할 밑반찬을 직접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또 암환자와 난치성질환자들이 살고 있는 40가구를 방문해 밑반찬과 함께 미리 준비한 이불, 전기요, 쌀·생필품 등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황재용기자

에이피엠모나코 코리아 출범

패션 주얼리 브랜드 '에이피엠모나코'가 18일 국내 법인인 '에이피엠모나코 코리아'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982년 모나코에서 탄생한 에이피엠모나코는 전 세계 46개국에 8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패션 주얼리 전문 브랜드다.

에이피엠모나코의 제품은 모나코의 도시적인 이미지와 남부 프랑스의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에 반영해 섬세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갖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소재는 금은부터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등 천연 보석까지 다양하다. 모든 컬렉션은 핸드 메이드 제품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한정판이다.

제품은 제주관광공사 지점 면세점, 아시아나항공 기내 면세점, 신라면세점 인터넷점 등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월간우등생' 겨울방학 이벤트

천재교육이 자기주도 학습지인 '2014 월간우등생학습' 겨울방학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4 월간우등생학습은 전면 개편된 교과서에 맞춰 스토리텔링, 서술·논술형 평가 등 학교 수업의 변화를 100%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 방학 동안 새 학년 예습을 할 수 있도록 방학호 '알알수학'을 신규로 제공한다. 1학년은 64종, 2~6학년은 67종으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12만9000원.

이번 상품은 내년 1월 7일까지 천재교육의 에듀몬 홈페이지와 GS숍, 롯데i몰, NS홈쇼핑, 예스24 등에서 판매된다. 이 기간 모든 구매자에게 2014년도 탁상달력을 증정하고, 형제 혹은 자매가 함께 구독할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 3건 이상 구독 시에는 1만원을 증정한다.

존박 '피자에땅' 모델 발탁

㈜에땅의 피자 프랜차이즈 전문 브랜드 피자에땅의 신제품 Entalia 골로세오 시금치 피자 TV CF가 지난달 30일에 방송된 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광고에는 전화 한 통에 이탈리아 피자 그대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의 특징과 배달 전문 피자의 신속성까지 명확하면서도 재미있게 담아냈다. 특히 피자에땅의 전속모델로 발탁된 존박(사진)이 하늘을 나는 모습과 먹음직스럽게 피자를 먹는 모습이 네티즌 사이에 화자가 되면서 신제품 매출 호조에 기여하고 있다. 피자에땅은 신제품 피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담긴 쿠폰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주문 전화 1688-3651

세바른병원 무료 관절 강좌

세바른병원 강서점이 19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 공담레문화복지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관절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송은성(사진) 세바른병원 강서점 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어깨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 예방법을 강의한다. 또 어깨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치료 후 재발을 막는 운동치료법도 함께 소개된다.

송 원장은 "오십견·회전근개파열·석회화건염·습관성 탈구 등의 어깨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번 강좌가 어깨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홀로 선 '상남자' 맘껏 끼 부렸다

굿굿한 소년에서 강렬한 로커로 돌아온 김재중이 오사카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김재중은 17~18일 일본 오사카 오사카조 홀에서 3시간 동안 단독 공연 '2013 김재중 첫 번째 앨범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열고 2만2000여 관객을 열광케 했다. 오프닝부터 강렬했다. 장내에 불이 꺼지고 영상이 재생되자 관객은 빨간색 불을 켜고 콘서트 장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김재중이 첫 곡 '9+1#'으로 공연장을 달구자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등 그의 몸짓과 손짓 하나하나에 반응했다.

솔로 로커로 변신한 김재중

◆틀에서 벗어나다

시작부터 파격적이었다. 깃털이 달린 검은색 옷을 입고 등장한 김재중은 속이 훤히 드러나는 의상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9+1#'과 '비터플라이' 로 강렬한 록 무대를 펼치며 공연장을 달궜다. 이어 쉼 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솔로 무대의 부족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팬들과 농담 섞인 대화를 나눈 뒤 무대 위에서 상의를 탈의하며 웃음 같이 있는 등 로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콘서트 전날까지 감기몸살로 고생했던 김재중이 공연 전 "쉬면서 힘을 충전했으니 콘서트에서 모두 쏟아내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뿜어냈다. 일본 여성 싱어송라이터 나카지마 미유키의 곡 '화장(化粧)'과 일본의 유명 록그룹 레미오로멘의 곡 '코나유키(粉雪·가랑눈)'를 부르자 현장 열기는 뜨거워졌다.

김재중은 공연 중간중간에 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기도 했다. 마치 오랜만에 친구와 연인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팬과의 소통하는 공연을 보여줬다.

◆드라마 같은 무대

이번 공연은 솔로 정규 1집 'WWW'의 콘셉트인 사랑 이야기로 꾸며졌다. 김재중은 직접 작사·작곡한 이번 앨범에 설레는 사랑의 시작부터 떠나간 사람에 대한 슬픔, 팬들을 향한 사랑, 지독한 사랑의 이픔 등을 담았다.

상반신 노출 파격 패션 2만2000여 일본팬 환호 내달 국내 팬에도 인사

가사에 맞춰 조명의 세기나 톤이 변화하는 등 각각의 무대마다 콘셉트가 바뀌며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됐다. 특히 무대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노래와 맞는 영상이 교차되면서 음악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다. 또 무대에 펼쳐지는 조명쇼와 특수효과는 관객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거미와 완벽 호흡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 거미와의 완벽한 하모니도 돋보였다. 솔로 정규 1집 수록곡 '햇살 좋은 날', '러브홀릭'을 듀엣으로 부르며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어 거미는 자신의 노래로 열기를 이어갔다.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OST '눈꽃'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친구라도'를 완벽한 라이브로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록 밴드 결성은?

이날 공연에 앞서 만난 김재중은 록 밴드 결성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록밴드를 만들려고 지난해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결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만약 록밴드를 구성한다면 순자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활동하고 천천히 밴드 멤버를 신중히 골라 결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중은 내년 1월 4개 도시를 도는 국내 투어를 앞두고 있다.

/오사카(일본)=양이슬기자 yss@metroseoul.co.kr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디자인/김아람

star bag

내년 4월 연상 여친과 결혼

개그맨 곽한구가 내년 봄 결혼한다.

그는 내년 4월 26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세 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2011년 자동차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예비 신부가 곽한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곁을 지키면서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곽한구는 2010년 외제차 절도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현재는 중고차 딜러로 활동 중이다.

새 소속사 확정…내년 복귀

배우 한예슬이 새 둥지를 결정하고 연예계 복귀에 시동을 건다.

한예슬은 SBS '마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의 자회사인 에스비엔터테인먼트와 최근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곳에는 현재 박근형이 소속돼 있다. 에스비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예슬은 꼭 발려 있는 한류스타라 영입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지상파 방송 드라마를 통한 국내 복귀를 시작으로 이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에서 온 그대' OST 참여

가수 린이 김수현 전지현 주연의 SBS 새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 OST 첫 주자로 참여했다.

18일 방송된 드라마 첫 회에서 린이 부른 '마이 데스티니'가 공개됐다. 이 곡은 외계인 도민준(김수현)과 여배우 천송이(전지현)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을 담은 노래다. 특히 린은 지난해 MBC '해를 품은 달' OST '시간을 거슬러'에 참여한 데 이어 이번 OST도 불러 김수현과 두 번째 인연을 맺게 됐다.

연애경험 담은 곡 '오드 아이'

가수 메이비가 자신의 사랑 경험을 담은 새 싱글 '오드 아이'를 18일 공개했다.

이 곡은 메이비가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아팠던 사랑의 경험을 두 개의 다른 눈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 오드 아이에 비유해 직접 작사한 노래다. 브리티시팝의 모던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녹아있는 발라드다. 따지 LP판에서 나온 듯한 오르간 소리와 웨더링된 코러스 보컬, 레트로적인 사운드가 메이비의 맑은 음성과 어우러졌다.

'성매매 소문' 흘린 검찰의 물타기

Issue&View
순서 바뀐 여배우 성매매 수사
/김수정 기자 sum@metroseoul.co.kr

사건 진위 확인 흐지부지 명예훼손 수사로 '뒷수습'

성매매 루머에 휘말린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다해(사진)가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사건을 배당하고 검찰 자원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다해 측은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루머는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한 이다해 측부터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다른 여성 연예인들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면 정보통신 관련 사건 전담 부서인 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질 바뀐 수사 엉뚱한 방향으로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연예계에 떠돌던 연예인 성접대 및 성매매와 관련해 처음으로 루머의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현행상 최고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만간 소문의 진원지가 밝혀질 전망이다. 해당 연예인들이 바라는 대로 루머를 뿌리 뽑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도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친 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연예인 성매매 사건'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연예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갈아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검찰에서 유출된 피의사실이다. 일주일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미인대회 출신 톱 탤런트 A', '수년 전 주연급으로 활동한 탤런트 B' 등이 연루됐다는 검찰의 수사 기밀이 흘러나오자 신상 캐내기가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볼 때 가장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전후 관계다.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본질인 성매매에 가담한 당사자들을 찾아서 강력한 처벌로 연예계의 오랜 불신과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성 연예인들의 고통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씻어주는 길이다.

검찰이 성매매 사건을 흐지부지 종결시키고 루머 유포자 찾기에만 매달린다면 자신들이 흘린 소문을 뒷수습하는 꼴이 될 뿐이다. 대중의 관심이 '성매매 연예인'에게 쏠려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는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집중돼야 한다. 수많은 여성 연예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검찰이 반드시 져야 할 책임이다.

가수 125명 함께 부른 '기적'

사회공헌 프로젝트 곡 '[illegible] 미러클' 녹음 참여

125명의 인기 가수들이 연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한 팀으로 뭉쳤다.

이승철·김조한·박진영·이효리·소녀시대·샤이니·엑소·비스트 등 34개 그룹 125명의 가수가 사회공헌 프로젝트곡 '위 아 더 미라클'을 함께 부른다. 이들은 2일 한자리에 모여 녹음을 했으며 29일 생방송으로 진행될 '2013 SBS 가요대전'에서 노래를 처음 공개한다.

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가요대전 행사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올해 음악은 기적을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가요대전은 시청자와 이웃이 함께한다는 취지의 '프렌드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번 노래를 주제곡으로 기획했다. 이 곡의 음원 수익금은 전액 SBS 희망TV에 기부돼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된다.

SBS 가요대전을 연출하는 강용권 PD는 18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가수들이 더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했다"면서 "좋은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수들과 작곡가 김형석 작사가 김이나 덕에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요대전은 가수들이 올해 많은 사랑을 받은 SBS '주군의 태양'과 '상속자들'을 패러디한 뮤직 드라마도 선보인다.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프렌드십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자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다.

'주군의 태양'에서 소지섭이 연기한 주군 역은 그룹 2PM 우영, 공효진이 맡은 태공실 역은 에이핑크 나은이 연기한다. '상속자들'에서 이민호가 연기한 김탄 역에는 샤이니 태민이, 박신혜가 열연한 차은상 역에는 걸스데이 민아가 캐스팅됐다.

한편 가요대전은 성시경, 슈퍼주니어 김희철, 2NE1 산다라박의 사회로 진행된다.

/탁진현기자 tak@[illegible]

"가위바위보도 멈춘 탁재훈"

'비틀즈 [illegible]' 새MC 신동엽

19금 개그의 달인 신동엽(사진)이 탁재훈의 뒤를 이어 Mnet 음악 토크쇼 '비틀즈 코드 3D'에 새 MC로 합류한 소감을 털어놓았다.

18일 서울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짜고 치는 건 쑥스러워하고 솔직한 걸 좋아한다"며 "19금 이야기도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하는 거다. 생각이 나는데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입담을 털어놨다.

그는 또 "원래 편성이 오후 6시 30분이어서 어린이들도 볼 수 있어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밤 11시로 바뀌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재치 있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전임 MC 탁재훈에 대해 "소문으로 들으니 최근 가위바위보도 안 한다고 하더라"면서 "내가 사건·사고를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연락하는 것보다는 방송에서 많이 언급해주는 게 낫다"고 근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탁재훈에 이어 신동엽과 호흡을 맞추게 된 슈퍼주니어의 신동은 "사건 사건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못 했다"면서 "함께 MC를 했던 형님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24일 첫 방송될 이 프로그램은 '비틀즈 코드'의 시즌3로, 이번엔 '위험하고 단도직입적이며 까칠하다(Dangerous, Direct, Diss)'는 뜻의 '3D'를 내세웠다. 탁재훈, 유상무, 장동민이 물러나고 신동엽과 함께 신동과 엠블랙 미르, 인디밴드 소란의 고영배가 MC로 나선다.

/탁진현기자

조핸슨·무어·해서웨이… 다 꼬신 '섹시 감독' 레빗

연출 데뷔작품 '돈 존' 초호화 출연진 화제

조셉 고든 레빗의 감독 데뷔작인 '돈 존'에 스칼릿 조핸슨·줄리엔 무어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내년 1월 9일 국내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최고의 섹시녀를 두고 '애동'과 배갈 피운 남자 돈 존의 '25금'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레빗이 주인공인 돈 존을 연기할 뿐 아니라 각본·연출까지 1인 3역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돈 존을 최강의 섹시녀로 단숨에 사로잡은 완벽한 여자 바바라 역은 할리우드 대표 섹시 아이콘인 조핸슨이 맡아 아찔한 매력을 선사한다. 연기파 배우인 무어는 돈 존에게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 주는 에스더 역으로 출연한다.

카메오 출연진도 화려하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디 크니어트' '레미제라블'로 국내 영화 팬들에게 인기가 높은 앤 해서웨이와 '스텝 업' '지 아이 조 2' '화이트 하우스 다운' 등을 통해 할리우드 신세대 액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채닝 테이텀이 나온다.

이들은 극중 유치한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현기자

조셉 고든-레빗(오른쪽)이 자신의 첫 연출작 '돈 존'에서 스칼릿 조핸슨과 끈적한 연기 호흡을 맞추고 있다.

'돈 존'에 카메오로 출연한 채닝 테이텀(왼쪽)과 앤 해서웨이.

이 한컷! 여름을 기다린 이유

하정우·강동원 주연 영화 '군도' 내년 개봉 확정… 강렬한 캐릭터컷 공개

하정우·강동원이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윤종빈 감독의 신작 '군도: 민란의 시대'(사진)가 내년 여름 개봉을 확정했다.

투자·배급사 쇼박스는 18일 "11월 1일 102회차의 촬영을 마쳤으며 내년 여름 개봉을 목표로 후반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정우를 비롯한 출연 배우들이 극중 배역으로 분한 사진을 공개했다. 그중에서도 하정우는 다 해진 옷을 입은 채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고 얼굴에 수염을 기른 강렬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영화는 지난해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로 474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형 범죄영화의 새로운 시대를 연 윤 감독의 차기작이다. 양반과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0년을 배경으로 백성의 편에 서고자 했던 도적들의 활약상을 그렸다.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충무로 대세남으로 자리잡은 하정우가 이번에는 억울한 사연으로 도적떼에 합류한 백정 돌무치 역할을 맡아 능수능란한 칼 솜씨를 선보일 예정이다. 하정우는 전작 '베를린'에서보다 강도 높은 액션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전우치' '의형제'를 통해 충무로의 흥행 보증수표로 떠오른 강동원은 나주 대부호의 서자로 조선 천지에 대적할 자가 없는 무관 출신 조윤 역할을 맡아 하정우와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친다. 지난해 11월 소집 해제 후 단편영화 '더 엑스'를 선보인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본격적으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tvN '응답하라 1994'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김성균은 물론 이경영·이성민·조진웅·마동석·윤지혜·정만식·송영창·한예리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제작진은 "살아나는 19세기 조선의 풍광과 액션 활극의 시각적 쾌감을 위해 189일간 전북 새만금과 군산·전주, 전남 구례와 담양, 충북 괴산, 경북 봉화와 안동, 경남 하동, 경기 양주와 용인, 강원 영월 등 전국을 종횡무진 누볐다"고 전했다.

/박선현기자 sak0427@metroseoul.co.kr

싸이의 굿잡… 애니 '넛잡' 3D캐릭터로 등장

제작비 45억 '국내 애니 최고액'… 리엄 니슨 등 더빙

국제가수 싸이(사진)가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450억원을 들인 '넛잡'에 특별 출연한다.

소속사는 18일 "'넛잡'에 싸이의 3D 캐릭터와 전 세계를 강타한 '강남스타일'이 등장한다"면서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시작될 때 싸이의 캐릭터와 '넛잡'의 캐릭터들이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춘다"고 밝혔다.

'넛잡'은 레드로버가 제작한 토종 3D 입체 애니메이션으로 내년 1월 17일 전미 3000개 관 상영을 비롯해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개봉이 예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리엄 니슨·캐서린 헤이글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목소리 출연으로 캐스팅돼 더욱 눈길을 끈다.

싸이의 특별 출연은 8월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레드로버와 지분 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이후 지속적인 상호 사업 제휴를 추진하던 중 성사됐다.

영화 관계자는 "최근 할리우드와 전 세계 배급사 관계자들, 어린이 및 가족 관객들이 초청돼 열린 테스트 영상 시사회에서 관객 대부분이 객석을 자아내며 '강남스타일' 춤을 따라 추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면서 "할리우드의 제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높은 품질에 놀랐고,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한류 콜라보레이션(융합)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전했다.

/박선현기자

'2억번째 관객' 탄생

올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명을 돌파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관객수 1억9997만4600명을 기록한데 이어 이날 오후 2억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대기록 달성은 올해 유난히 한국영화 흥행작이 많이 나온 덕에 가능했다. 한국영화는 17일까지 1억1814만2326명을 모았다.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지난해(1억461만3190명)에 세운 기록을 약 11개월 만에 돌파했다.

올해 최다 관객을 동원한 '7번방의 선물'(1281만 명), 900만 명을 넘은 '설국열차'(934만 명·2위)와 '관상'(913만 명·3위)을 비롯해 '베를린'(716만 명), '은밀하게 위대하게'(695만 명), '숨바꼭질'(560만 명), '더 테러 라이브'(557만 명), '감시자들'(550만 명) 등 8편이 500만 관객을 넘었다.

/김진현기자

공부되지! 재밌지! 타임머신 역사여행

박물관·유적지 등 겨울방학 학부모·학생 함께 떠나는 우리역사 체험 프로그램 풍성

역사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교육부가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목 특성상 아이들이 역사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역사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스레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학부모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황성국 체험학습 포털 위크온 본부장은 "주말에 자녀와 함께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답방하는 역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흥미롭게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선문가의 해설도 들을 수 있어 학습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녀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듯 옛 선조들의 삶과 향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역사 체험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 위크온이 추천하는 베스트 역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석 박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제여행

체험학습 전문업체 여행 3755는 전공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충남 공주와 부여의 백제 유적지를 하루 동안 돌며 백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석 박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제 여행'을 선보였다. 신라, 고구려와 함께 삼국시대를 이끌던 백제는 그 어느 시대보다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것으로 유명하다. 송산리 고분군-부소산성-낙화암-정림사지 등의 유적지와 국립공주박물관을 돌며 백제에 대한 전문 해설과 함께 탐정 미션 수행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색다른 역사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뉴그라운 제공

◆역사 속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국립중앙박물관은 '역사 속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주제로 우리 역사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박물관에서 자유으로 선보이는 '그림 숲에서 만난 작은 친구들' 특별전은 우리의 옛 그림 속에 등장하는 꽃, 곤충, 새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와 연계해 유아 및 초등생 교육 프로그램인 '병아리들의 그림 숲 속 여행'과 '이야기가 숨어있는 옛 그림 산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내가 구석기인! 선사시대 문화 체험

한국교육문화재단은 전곡 선사박물관에서 구석기시대의 문화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오늘은 내가 구석기인~!' 문화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견학 및 영상 관람을 통해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종류의 석기들을 보며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를 익힐 수 있다. 여기에 선사시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막집 짓기, 석기 만들기, 구석기 옷 만들기, 사냥하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조선 왕조의 생활을 엿본다!

월드섬엠사는 오는 28일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과 왕실 가족의 주거 공간인 경복궁을 둘러보며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통합교과-상상의 동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조선시대 관청 거리였던 세종로를 지나 경복궁에 이르는 길과 왕과 신하들이 업무를 보던 외전, 왕과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인 내전, 연회와 휴식의 공간이었던 후원 등이 상세히 소개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나, 빼놓고 가면 후회할 걸~

해외여행 필수 3대 아이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해외여행객 수가 125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연말연시 막바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올해 해외여행객 수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연시 해외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모아봤다.

◆물갈이로 인한 설사, 복통!

해외여행 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일명 물갈이로 알려진 '여행지 설사'는 복통·구토를 동반할 수 있고 탈수 현상 등의 증세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셀바이오텍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 '듀오락 스타'은 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의 제거를 도와 설사, 복통으로부터 자연스러운 회복을 유도한다. 이 제품은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면세점에 입점해 여행객들의 구매도 용이하다.

◆여행의 즐거움은 기본, 스타일은 덤!

튼튼하고 실용적인 캐리어는 여행 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돼준다. 쌤소나이트 '스핀 트렁크'는 보다 많고 같은 수납공간으로 여행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제품이다. 주 수납부 용량을 최대한 늘렸고 폴리염화비닐(PVC) 포켓과 덮개 부분에도 지퍼형 수납공간이 있어 양쪽으로 수납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내 집에서처럼 편히 잘 수 있다면!

해외여행은 장시간 비행과 시차 적응으로 잠자리가 예민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한다. 간편히 챙겨갈 수 있는 '템퍼 여행용 세트'를 갖추면 포근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완성할 수 있다. 휴대가 편리한 이 세트는 여행용 타월와 베개로 구성돼 있으며 바퀴가 달린 캐리어 백이 포함돼 있어 어떤 종에도 손쉬운 이동이 가능하다.

/정해일 기자

겨울캠퍼 꼭 챙기는 '뜨끈한 국물'

간편식 육개장·짬뽕밥 등 뜨거운 물만 부으면 OK

전국에 함박눈이 내리고 수은주가 떨어진 가운데 '캠핑의 꽃'이라 불리는 동계 캠핑을 준비하는 캠핑족이 늘고 있다. 겨울 캠핑이나 스키장, 겨울 트레킹 등을 준비하는 데 따뜻한 간편식만큼 짐 무게를 줄이고 속을 든든하게 채줄 만한 것도 없다.

최근 식품업계에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 간편식품들은 추위를 잊게 하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한 끼 식사로 즐길 수 있도록 해 캠핑족, 여행객, 1인 가구들에게 고른 인기를 얻고 있다.

대상FNF 종가집의 '버섯육개장'과 '사골 우거지국' 등 2종으로 구성된 '데이즈 간편국 2종'은 파우치 형태로 출시돼 데우기만 하면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따뜻한 국물을 즐길 수 있다. '버섯육개장'은 느타리버섯, 소고기 등 각종 재소를 얼큰한 육개장 육수에 우려내 육개장의 얼큰하고 개운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사골 우거지국'은 사골 농축액 육수를 기본으로 신선한 국내산 배추 우거지와 소고기를 푸짐하게 넣은 것이 특징이다.

사조대림의 신제품 '대림 선 즉석포차 컵어묵 2종'은 어묵탕의 맛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던 기존의 컵어묵과 달리 종이컵 형태를 적용해 야외에서도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된다. 유통 및 보관이 편해지고 야외 활동에 더욱 적합해진 것이 특징이다.

청정원의 '집들 전국밥 4종'은 용기 안의 건조밥에 국을 맛을 완벽히 재현해내는 액상수프와 건더기를 넣고 끓는 물을 부어 4분30초 정도만 지나면 간편하게 국밥을 즐길 수 있다.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의 식감과 시원하면서도 진한 국물 맛을 조화롭게 느낄 수 있다. '사골곰탕국밥'과 '콩나물해장국밥', '나가사키식 짬뽕밥', '삼레이식짬뽕밥' 4종으로 취향에 따라 맛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해일 기자 ...

하나투어 국내외 일출상품

하나투어가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국내외 일출 상품을 선보인다. 우선 새해맞이 일출 감상 황산 4일'은 중국 황산 산 위 숙박을 통해 2013년 마지막 일몰과 함께 2014년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시모노세키를 왕복하는 '선상 불꽃놀이&해돋이 3일', 제주 3일 해맞이 이벤트 생생 일병투어', 동영 미륵산 일출 2일', '여수 오동도 일출 2일' 등의 상품도 준비된다.

네이마르 3경기 연속골

네이마르 다 실바(21·사진)가 세 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리오넬 메시가 빠진 FC 바르셀로나에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네이마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카르타헤나와의 2013~2014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32강 2차전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43분 쐐기골을 터트렸다.

그는 12일 셀틱(스코틀랜드)과의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6차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15일 비야레알 CF와의 프리메라리가 16라운드에서 2골을 넣는 등 최근 3경기에서 6골을 몰아넣는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했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경기 승리로 1·2차전 합계 7-1로 카르타헤나를 따돌리고 16강에 진출했다.

/유순호기자

양용은·김경태·김형성 아시아-유럽 대항전 출전

양용은(41·KB금융그룹·사진) 김경태(27·신한금융그룹) 김형성(33·현대하이스코)이 유럽 대항전에 한국 대표로 나선다.

이들은 20일부터 사흘간 중국 광저우 드래건 레이크 골프장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골프대항전 로열트로피에 아시아 대표 선수로 나서 대회 2연패를 노린다.

각각 8명씩 팀을 이뤄 대결을 펼치며 일본에서는 간판스타 이시카와 료와 후지타 히로유키가 합류한다. 중국의 장롄웨이가 아시아팀의 부단장으로 나서며 량원충·우아순(이하 중국), 통차이 자이디와 키라덱 아피반랏(이하 태국) 등도 한 팀을 이룬다. 아시아팀 단장은 양용은이 맡는다.

유럽에서는 단장인 호세 마리아 올라사발(스페인)을 필두로 니콜라 콜사츠(벨기에), 폴 로리, 마크 워런, 스티븐 갤러허(이상 스코틀랜드)가 출전한다. 토르비욘 올레센(덴마크), 알바로 퀴로스(스페인), 베른트 비스베거(오스트리아), 데이비드 하월(잉글랜드)도 유럽 대표로 선발됐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8일

전자랜드	29	8	17	21	75
모비스	25	25	21	16	87
SK	18	22	15	12	67
인삼공사	22	6	20	22	70
하나외환	18	16	13	22	70
국민은행	26	12	22	24	84

프로배구 전적 18일

현대캐피탈	3	0	러시앤캐시

477일 만에! 기적 같은 데뷔골

기성용, 리그컵 첼시전 연장 종료 2분전 결승포 "믿을 수 없어"…적장 모리뉴도 "가장 중요한 선수"

기성용(24·선덜랜드 AFC)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마침내 성공 시대를 예고했다.

기성용은 18일 영국 선덜랜드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첼시와의 2013~2014 캐피털원컵(리그컵) 8강전에서 후반 16분 교체 투입돼 연장 후반 13분 결승골을 꽂으며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지난 해 8월 스완지시티 AFC에 입단하며 프리미어리그에 발을 디딘 기성용은 주목할 만한 활약을 하지 못하다가 9월 선덜랜드로 임대됐고, 마침내 477일 만에 첫 골을 신고했다.

마수걸이 골은 리그 최하위 팀의 선수로서 3위의 강팀 첼시 FC를 상대로 뒀다는 점에서 더욱 빛났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 스완지시티에서 한 번 리그컵 우승을 경험한 바 있어 팀을 4강으로 이끈 그의 입지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득점은 한 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최강희 전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비난글로 순식간에 이미지 실추를 겪었고, 국가대표팀 탈락과 팀 임대 등 어수선한 주변 환경으로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기성용을 선덜랜드에서 임대해온 파올로 디 카니오 감독이 경질되면서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구스타보 포예트 감독은 기성용의 패스 능력과 방향 전환 등을 높이 평가하며 완전 이적을 원하는 등 강한 신뢰를 보냈다. 결국 기성용은 감독의 믿음에 보답한 것과 동시에 리그 최하위로 침체를 겪고 있는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다.

이번 경기 직전 첼시의 조제 모리뉴 감독은 기성용을 선덜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꼽기도 했다.

기성용은 경기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골을 넣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팀의 4강 진출에 보탬이 되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오늘 승리한 덕분에 우리 팀은 자신감에 차 있다. 앞으로 남은 경기가 많은 만큼 승리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18일 2013~2014 캐피털원컵 8강전에서 선덜랜드의 기성용이 강호 첼시 FC를 상대로 연장 후반 13분에 결승골을 넣은 뒤 유니폼 상의를 벗어 던진 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태풍 전격 KT행… 오리온스와 4대4 '빅딜'

부산 KT 소닉붐과 고양 오리온스가 프로농구 역사에 남을 그 대형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다.

두 팀은 18일 4대4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KT의 김도수(32·195㎝) 장재석(22·203㎝) 임종일(23·190㎝) 앤서니 리처드슨(30·200㎝)이 오리온스의 유니폼을 입고, 오리온스의 전태풍(33·180㎝·사진) 김승원(24·202㎝) 김종범(23·192㎝)·랜스 골번(24·200㎝)이 KT로 옮긴다.

국내 최고 가드 중 한 명인 전태풍의 이적은 이번 트레이드의 최대 관심사다. 올 시즌 포인트 가드에서 슈팅 가드로 포지션을 옮긴 그는 지난 시즌(12.3점 6.1어시스트)에 비해 10.7점에 2.8어시스트로 부진을 보였다.

그러나 가드가 취약한 KT로 옮기면서 팀의 취약점을 단숨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KT는 전태풍·조성민 쌍포를 가동해 순위 도약을 노린다. 전태풍을 내준 오리온스는 평균 17.65점을 올리는 리처드슨을 영입해 전력을 탄탄하게 다지게 됐다.

KT로 옮기는 김승원은 이번 시즌 평균 9.3점에 5.6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며 뛰어난 탄력과 투지가 돋보이는 선수다. 오리온스에서 뛰게 된 김도수는 올해 평균 3.4점을 넣고 리바운드 2.1개의 성적을 내고 있다. 장신에 3점 슛을 겸비한 것이 장점이다. 전태풍이 빠진 오리온스의 가드진은 이현민, 한호빈, 전형수, 조효현 등이 이끌게 됐다.

두 팀은 올스타 휴식기를 이용해 새로 영입한 선수들과 손발을 맞춘 뒤 오리온스는 24일, KT는 25일 경기부터 새로운 라인업으로 나선다.

/유순호기자

"추신수, 텍사스와 6년 1264억 계약할것"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마지막 대어인 추신수(31·사진)가 6년 1억2000만 달러(약 1264억원)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신수 측이 텍사스행을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부 사항을 놓고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와 구단 간의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추신수 측 조건은 7년 총액 1억4000만 달러(약 1474억원) 이상이지만 텍사스가 6년 이상의 장기 계약에 난색을 보여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신수가 텍사스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점은 현지 언론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런 가운데 신시내티 레즈 단장 출신으로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ESPN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짐 보든은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은 칼럼에서 양측의 합의점으로 6년 1억2000만 달러를 제시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인 블리처리포트도 타선을 재편해야 하는 텍사스가 톱타자 추신수를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리처리포트는 출루 기계인 추신수가 공격의 물꼬를 트고 번트를 잘 대기로 유명한 엘비스 안드루스가 2번으로 받치면 프린스 필더, 애드리안 벨트레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지 전문가들은 추신수가 연봉 2000만 달러(약 211억원)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순호기자